



108개의 도급업체에 맡겼다. AS요금을 삼성전자가 받아 위장
도급 형태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1.7조원 이상을 한국형 AS비 명목으로 소비자로
부터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중 6천억원만 실제
AS를 위해 지출했다. 다른 나라엔 없는 이익이 한국에서만
AS 명목으로 1조원 이상 발생한 셈이다.

"다 녹아있는 거야"

삼성전자의 AS를 총괄하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노동 특성과 노동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급단가를 책정하였고, 독특한 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 바지사장들이 마음대로 엔지니어 임금을 떼어먹을 수 있도록 했다. 소위 '녹아있다'는 항목에 정당한 댓가는 없다. 녹아있기는 개뿔! 우리의 임금은 현재 원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더이상 속지 말자!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과 소비자들은 모두 삼성 자본의 탐욕에 의해 속아왔다. 삼성전자가 서비스를 벌미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윤은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을,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정당한 댓가를 원한다.

다시 꿈틀대는 가입 흐름

노동조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비조합원, 비가입 센터들도 더이상 지켜보기만 하진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함께 할 때에야만 제대로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료들의 삶, 그리고 삼성에서 노조하겠다는 우리의 '꿈'을 위해 죽은 최중범 열사를 기억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알다시피 삼성전자는 AS를 이중 공급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지분의 99.3%를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 소유주나 다름없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서비스로 AS업무 전체를 위탁했고, 삼성전자서비스는 다시 90% 이상의 수리 업문을

삼성은 사죄하고 교섭에 응하라!



최종범 열사가 떠난지 25일이 지나도록 삼성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다. 지난 11월 21일 최종범 열사의 부인은 힘겹게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 서서 열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에 △최종범 열사에 대한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최종범 열사 죽음의 배경인 표적감사와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등 노조탄압 중단과 재발방지 △건당 수수료제도 폐지와 월급제 도입, 생활임금 보장 △최종범 열사의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는 교섭을 11월2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자고 공문을 전달했다.

비겁하게 바지 뒤에 숨지마라!

열사대척위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최종범 열사가 떠난 지 3주가 지났지만 삼성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바지사장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노조 파괴를 할 것이 아니라 교섭장에 나와서 유가족과 대책위, 노조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범 열사의 부인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날씨가 추워집니다. 별이 아빠는 더 추운 냉동실에 있습니다. 12월13일이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별이의 첫 생일

인데 아빠의 축하를 받지 못하는 우리 별이 돌잔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삼성 사측에 보내는 편지 낭독을 시작했다.

부인은 “별이 아빠의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고, 노조를 한다는 이유로 동료들이 탄압받지 않길 바랐고, 열심히 일하면 배부르지 않아도 동료들이 배고프게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라고 최종범 열사의 뜻을 전했다.

노조개기는 수포로 돌아갔다

센터별 교섭에서 바지사장들이 위임한 경총 소속 교섭위원들은 질문성 공방을 통한 지연전술을 계속하고 있다.

교섭원칙을 세우자는 노조의 요구에 경총은 내부 이견을 핑계로 진전된 안을 내지 않아왔다. 그러나 더는 이런 상태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교섭을 진전시켜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거나, 조정신청을 내거나 둘 중 하나다.

우리는 최종범의 꿈을 잇는 투쟁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노동조합을 체계화시키고 조합원 역시 확대해나가고 있다.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도 확장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깨려했던 삼성 자본의 계약은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당당하게 투쟁하자! **STEVEN**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

사측의 근무여건실태조사에 부처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협력사 근무여건 실태조사 설문지를 엔지니어들에게 돌리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면담에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란다. 이처럼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있을까? 자신들이 지시하고 저지른걸 스스로 조사한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최종범 열사가 목숨을 끊은 지 25일이 넘었다.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는 열사의 죽음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바보로 아는가? 이미 원청의 책임은 대낮처럼 환히 밝혀졌다. 업무지시와 임금 지급, 심지어 고객에 대한 멘트까지 일일이 삼성이 지시했고, 관리해오며 표적 감사와 지역쪼개기, 노조 가입 방해 등으로 노동조합 탄압을 진두지휘해오지 않았는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며, 매일 점심을 라면으로 때워야 하는 우리의 열악한 현실은 최종범 열사의 죽음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론에서, 내부에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삼성의 꿈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당연히도 삼성은 조사의 행위자가 아닌 조사의 대상이다! 엔지니어를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를 고통스런 현실로 내몬 당사자다! 조폭이 새끼두목들의 영업장을 조사하는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삼성전자서비스는 기만적이고 익명성 조작 보장되지 않는 면피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그런 식으로는 어떤 면죄부도 살 수 없다. 박상범 사장의 책임있는 사죄와 요구안 인정, 직접교섭만이 유일한 방법일 뿐이다. **STEVEN**